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

칵테일 레시피를 알려주는 웹 사이트
CockTell 칵테일을 말한다.

개발자 : 임채윤
장소현

개발 목적

- 젊은 세대들이 칵테일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여, 칵테일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칵테일 레시피를 중심으로 한 웹 플랫폼**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는 칵테일 레시피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직접 자신만의 특별한 음료를 만들며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칵테일 제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 환경

프론트 엔드

- HTML
- CSS
- JavaScript
- React 기반 Next.js

백엔드

- Next.js
- Notion DB

웹 호스팅

- 깃허브 페이지(깃 액션)

개발 내용

- 코로나 시대 이후 홈텐딩에 관심이 많아진 젊은층에게 칵테일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칵테일 레시피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구축
 - 유용한 필터(Recipe Page), 검색기능(Search) 그리고 재료로 레시피 찾기(My bag Page)를 통해 칵테일 입문자도 원하는 맛 또는 재료의 칵테일을 탐색할 수 있음
- 사용자가 오늘의 기분을 입력하면 그에 맞추어 칵테일을 추천해주는 AI 칵테일 추천 서비스
 - Open ai API를 활용해 제작한 칵테일 추천 서비스
- 칵테일 도수 계산기를 통해 칵테일의 도수를 쉽게 구하고,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소주, 맥주와의 비교를 통해 입문자도 쉽게 알코올의 양을 가늠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

- 칵테일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준다.
- 칵테일 제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춘다.
- 다양한 칵테일 레시피와 아이디어를 공유한다.
- 칵테일이 술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제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 다양한 음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로 발전 할 수 있다.

느낀점

- 임채윤 : 이번 프로젝트는 저에게 있어서 성장할 기회를 정말 많이 얻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은 인원, 심지어 팀원 둘 다 개발에 경험이 없던터라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건 프로젝트를 위해 공부하는데 어느 부분이 이해가지 않아 또 그부분을 위한 다른 공부를 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도돌임표가 될 때 아닐까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건들다보니 내가 만든 작품이라는 것에 애정이 생기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아끼지 않고 푹 빠져서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도 두려움을 갖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소현

이번 대회 참여는 저에게 많은 지식을 알게 해주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개발에 미숙한 두 명이 무작정 시작하니 개발할 내용을 충분히 상세하게 기획하지 않고 시작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이로 인해 개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며, 개발의 방향성을 계속 조정해야 했습니다.

특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뒤로 미뤄놓은 것은 큰 어려움을 야기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하고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았고, 이를 잘 수행해야만 기능 구현과 데이터 관리가 원활히 진행되리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에 앞서 충분한 준비를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고 더욱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고 느꼈습니다..